

# Active aging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요구에 관한 연구

곽 인 숙(우석대 실버복지학과 교수)

## I. 서 론

65세 이상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2000년에 노인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10.82%에 이르렀으며, 2018년에는 14.2%,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0).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개인은 물론 가족이나 사회에서 노화에 관해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와 노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노화를 개인적 측면을 강조하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개인이 성공적으로 늙어가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상태를 위한 것으로써 연령이 들어감에 따라 기능이 감퇴되므로 이에 맞추어 어떻게 개인은 최적화 상태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감퇴된 기능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 노화는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생산능력이 감퇴되기 시작해 노인자원의 활용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성공적 노화의 시각에서 생산적 노화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란 노인을 노동시장에 참여 시킴으로써 근로생활을 연장시키고, 유급의 생산활동 노인의 생산능력을 증진시키고, 노인자원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산적 노화의 시각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노화에 대한 시각이 active aging(활동적 노화)이다.

active aging이란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사회적인 참여, 근로시간 연장, 평생교육 참여 등 차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WHO, 2002). 이러한 노화에 관한 시각의 변화는 노화와 노인인구를 위한 정책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활동적 노화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요구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적·주거환경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조사에서 선정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영역은 WHO(2002)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서비스영역분류에 따르기로 한다(표 1).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설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계속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노인에게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과 만족할만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함으로써 Aging in Place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1> active aging을 위한 요소와 효과

| 요소        | 서비스   | 효과  |
|-----------|---|---|
| 건강·사회 서비스 | 건강증진, 질병예방, 정신건강서비스, 정기적 건강검진   | 질병의 예방, 비상시 보호, 예방과 치료가 모두 포함되므로 비용절감효과                     |
| 물리적 환경    | 안전하고 적절한 주택과 이웃, 연령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   | 낙상과 상해를 예방  |
| 행동적 요소    | 건전한 라이프스타일의 선택, 자신을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적절한 신체적 활동 서비스                                     | 질병의 예방과 신체적 기능감퇴를 예방, 생활의 질 향상                              |
| 개인적 요소    | 질병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 심리적 요소, 문제 해결 능력의 효율적 조절, 노화로 인한 변화와 감퇴에 대한 적응, 자기효능감의 증진 | 은퇴에 대한 대비, 전환기에 잘 적응, 우울증에 대비, 삶의 기대와 자신감에 의해 건강수준이 달라짐(예방) |
| 사회적 요소    | 생애교육의 기회 제공, 사회적 접촉의 증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   | 노인학대 예방, 생애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높임, 노인들의 고독 해소                      |
| 경제적 요소    | 노인연금, 수입, 일자리, 장기요양, 사회적 보장   | 빈곤예방, 확실하고 충분한 소득, 적절한 주거와 건강돌봄, 부양서비스 제공                   |

출처; WHO(2002)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은 중소도시와 읍면의 농촌지역을 모두 포함했으며, 조사대상은 50세이상 장년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총 520명을 조사하였다. 질문지에 의거한 1인 면담 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이중 부실 기재된 응답자를 제외한 504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2010년 5월 6일부터 26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과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일반적 특성과 주거환경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예비검사를 통해 영역별로 5개의 문항씩 총 30개의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측정은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합산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요구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구성, 가계총소득 등을 포함하였다.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가족결속력, 노화에 대한 태도 등 각각6개 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값을 구했으며, 재가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와 VIF계수를 검토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04)

|               |           | 빈도     | 백분율    |           |              | 빈도    | 백분율    |
|---------------|-----------|--------|--------|-----------|--------------|-------|--------|
| 성별            | 남성        | 209    | 41.5   | 배우자유무     | 유배우자         | 359   | 71.2   |
|               | 여성        | 295    | 58.5   |           | 무배우자         | 145   | 28.8   |
| 연령            | 50대       | 116    | 23.0   | 주택유형      | 단독주택         | 198   | 39.3   |
|               | 60대       | 219    | 43.5   |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 53    | 10.5   |
|               | 70대 이상    | 169    | 33.5   |           | 아파트          | 253   | 50.2   |
| 교육수준          | 무학        | 63     | 12.5   | 가족구성      | 핵가족          | 179   | 35.5   |
|               | 초등학교졸업    | 129    | 25.6   |           | 확대가족         | 105   | 20.8   |
|               | 중학교졸업     | 112    | 22.2   |           | 노부부가족        | 141   | 28.0   |
|               | 고등학교졸업    | 155    | 30.8   |           | 노인1인가구       | 79    | 15.7   |
|               | 전문대학졸업이상  | 45     | 9.0    |           |              |       |        |
| 주택소유          | 본인소유      | 330    | 65.5   |           |              |       |        |
|               | 자녀소유      | 115    | 22.8   |           |              |       |        |
|               | 전월세, 무상임대 | 59     | 11.7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              | 평균    | 표준편차   |
| 월평균 총가계소득(만원) |           | 231.51 | 246.29 | 거주지속년수(년) |              | 13.47 | 11.017 |

#### 2. 조사대상자의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조사대상자의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소별 평균요구수준을 살펴보면, 행동적 요소에 대한 요구수준이 평균7점 만점에 5.28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건강·사회서비스, 사회적 요소, 개인적 요소, 물리적 환경, 경제적 요소의 순으로 낮아졌다(표 3 참조).

<표 3>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

(N=504)

| 요소                        | 재가복지 서비스                           | 평균   | 표준편차  |
|---------------------------|------------------------------------|------|-------|
| 건강·사회 서비스<br>4.833(1.046) | 부부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 6.30 | .959  |
|                           |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 6.04 | 1.137 |
|                           | 가정에 혈당측정기나 혈압측정기의 제공               | 4.57 | 1.792 |
|                           | 주택내부에 비상(지역)경보장치 설치                | 4.51 | 1.797 |
|                           | 건강관리를 위한 당뇨와 혈압측정 서비스              | 3.98 | 1.937 |
| 물리적 환경<br>4.631(1.370)    | 주택의 가스, 화재경보기 설치                   | 5.01 | 1.642 |
|                           | 욕실을 바닥 미끄럼 방지 바닥으로 개조              | 4.88 | 1.600 |
|                           | 거실, 침실을 미끄럼 방지 바닥으로 개조             | 4.64 | 1.813 |
|                           | 주택의 난방설비 개선                        | 4.49 | 1.797 |
|                           | 주택의 수리를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                | 4.41 | 1.533 |
| 행동적 요소<br>5.289(.800)     | 질병예방, 사고예방 교육 프로그램                 | 6.25 | 1.006 |
|                           |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 5.78 | 1.121 |
|                           |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              | 5.33 | 1.289 |
|                           | 자기개발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 5.23 | 1.344 |
|                           |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동호인 프로그램              | 5.12 | 1.339 |
| 개인적 요소<br>4.853(.875)     |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 5.19 | 1.285 |
|                           |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고, 사고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 | 4.95 | 1.387 |
|                           | 자아의 다양한 측면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4.90 | 1.175 |
|                           | 지혜와 성숙함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             | 4.88 | 1.279 |
|                           |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배울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        | 4.73 | 1.329 |
| 사회적 요소<br>4.872(.864)     | 가족간의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담, 교육 프로그램     | 6.18 | 1.014 |
|                           | 허물없이 이야기할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 5.88 | 1.109 |
|                           | 타인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 5.11 | 1.374 |
|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기관, 상담사, 상담전화 서비스    | 5.07 | 1.332 |
|                           | 학대 받은 노인을 위한 피신할 수 있는 쉼터의 마련       | 4.51 | 1.619 |
| 경제적 요소<br>4.607(.936)     |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의 지원      | 5.52 | 1.294 |
|                           | 매일매일 할 소일거리의 제공                    | 5.38 | 1.459 |
|                           | 자산관리, 재무관리와 관련된 교육, 상담 서비스         | 5.35 | 1.163 |
|                           | 노인을 위한 노인용공공임대주택의 보급               | 4.36 | 1.865 |
|                           | 주택을 저당잡고 매달 생활비 지급(역모기지 서비스)       | 4.00 | 1.865 |

### 3.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가복지서비스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은 개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적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가계소득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지한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에 대한 서비스요구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 요소는 경제적 요소는 남성들의 요구수준이 높았고, 행동적 요소에 대한 요구는 여성들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요소에 대한 요구수준은 심리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04)

|              | 건강·사회서비스   |       | 물리적 환경     |       | 행동적 요소     |       |
|--------------|------------|-------|------------|-------|------------|-------|
|              | b          | β     | b          | β     | b          | β     |
| 일반적 특성       |            |       |            |       |            |       |
| 성별           | -1.104     | -.074 | -.160      | -.008 | 1.557**    | .145  |
| 연령(년)        | -.080      | -.085 | .057       | .047  | -.072      | -.106 |
| 교육수준         | -.148      | -.084 | -.091      | -.041 | -.044      | -.035 |
| 가족유형(핵가족)    | -1.748     | -.108 | -2.010     | -.097 | -.297      | -.026 |
| 가족유형(확대가족)   | 1.955***   | .216  | 2.088**    | .177  | .720       | .110  |
| 배우자유무        | -.391      | -.024 | -1.030     | -.048 | -1.558**   | -.131 |
| 총가계소득        | .004*      | .139  | .003       | .084  | .000       | .024  |
| 주관적 경제상태     | .393***    | .268  | .274*      | .143  | .054       | .051  |
| 건강상태         | .185*      | .120  | .281**     | .142  | -.178**    | -.160 |
| 주거환경적 요인     |            |       |            |       |            |       |
| 거주기간         | -.049      | -.072 | .010       | .011  | -.028      | -.056 |
| 주택의 규모       | .029       | .049  | .045       | .058  | -.030      | -.069 |
| 주택의 유형(단독주택) | 1.688      | .103  | .537       | .025  | .246       | .021  |
| 주택의 소유(자가)   | -5.216***  | -.233 | -5.390**   | -.188 | .314       | .019  |
| 주택내 사고경험     | 1.664***   | .164  | 2.739***   | .211  | .608       | .083  |
| 심리적 요인       |            |       |            |       |            |       |
| 자존감          | -.353***   | -.282 | -.301**    | -.188 | .103*      | .115  |
| 우울감          | -.130      | -.109 | -.117      | -.075 | .147***    | .171  |
| 가족결속력        | .111*      | .122  | -.066      | -.056 | .036       | .055  |
| 노화에 대한 태도    | .378***    | .419  | .872***    | .415  | .541***    | .464  |
| 상수           | 35.391***  |       | 22.309**   |       | 10.984**   |       |
| F-value      | 8.159***   |       | 6.308***   |       | 13.735***  |       |
| R2(Adj. R2)  | .306(.269) |       | .256(.215) |       | .427(.396) |       |
|              | 개인적 요소     |       | 사회적 요소     |       | 경제적 요소     |       |
|              | b          | β     | b          | β     | b          | β     |
| 일반적 특성       |            |       |            |       |            |       |
| 성별           | -.301      | -.021 | -.444      | -.029 | -1.92**    | -.126 |
| 연령(년)        | -.179**    | -.199 | -.245***   | -.252 | -.118*     | -.123 |
| 교육수준         | .268**     | .160  | -.188      | -.104 | .064       | .036  |
| 가족유형(핵가족)    | 1.160      | .076  | -1.610     | -.097 | -1.072     | -.065 |
| 가족유형(확대가족)   | .488       | .056  | 2.791***   | .300  | 1.092      | .118  |
| 배우자유무        | -2.547**   | -.162 | -2.784**   | -.164 | -.0795     | -.047 |
| 총가계소득        | .003       | .124  | .005**     | .177  | .004*      | .139  |
| 주관적 경제상태     | .074       | .053  | .373***    | .248  | .200       | .134  |
| 건강상태         | .056       | .038  | .077       | .049  | .078       | .050  |
| 주거환경적 요인     |            |       |            |       |            |       |
| 거주기간         | .006       | .009  | -.024      | -.034 | .055       | .079  |
| 주택의 규모       | -.123***   | -.214 | -.114**    | -.185 | .057       | .093  |
| 주택의 유형(단독주택) | .432       | .028  | -1.808*    | -.107 | -2.659**   | -.159 |
| 주택의 소유(자가)   | .130       | .006  | .313       | .014  | -4.376**   | -.192 |
| 주택내 사고경험     | .481       | .050  | 1.481**    | .142  | 1.024*     | .099  |
| 심리적 요인       |            |       |            |       |            |       |
| 자존감          | .254***    | .213  | -.119      | -.092 | -.143*     | -.115 |
| 우울감          | .315***    | .277  | .099       | .081  | -.108      | -.089 |
| 가족결속력        | -.225***   | -.259 | -.057      | -.060 | -.064      | -.069 |
| 노화에 대한 태도    | .496***    | .322  | .670***    | .403  | .741***    | .450  |
| 상수           | 15.168**   |       | 15.571***  |       | 38.302***  |       |
| F-value      | 8.286***   |       | 8.995***   |       | 8.248***   |       |
| R2(Adj. R2)  | .309(.272) |       | .327(.291) |       | .308(.271) |       |

\*p< .05    \*\*p< .01    \*\*\*p< .001

#### IV. 결론 및 논의

active aging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서비스중 개별항목들의 요구수준에서 부부, 가족, 사회와의 화목을 위한 프로그램과 건강이나 사고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개인의 능력이 나 자기개발 영역에 대한 요구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적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가계소득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지한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우울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 요소는 경제적 요소는 남성들의 요구수준이 높았고, 행동적 요소에 대한 요구는 여성들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요소에 대한 요구수준은 심리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서비스중 가장 요구수준이 높은 부부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될 것이다. 부부의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부관계의 정립, 기혼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둘째, 질병예방과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노인의 경우 아파트보다 시설설비 측면에서 노후하고 질적 수준이 낮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주택에 대한 수리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노인기의 일상생활동작능력이 저하된 노인에게 주택개조와 같은 환경적 지원은 노인의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으며,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노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중 가족이 화목하게 생활하고 다양한 연령,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사소통기술, 자아존중감의 증진, 자기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선 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을 파악하는 것에 그쳤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의료관리와 관계된 서비스분야에 대한 내용(호스피스 케어, 방문간호)과 노인여가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도 포함시켜 노인생활에 필요한 광범위한 복지서비스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곽인숙(2009) 노인의 주택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55-66.
- 국토연구원(2008) 2007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박신영(2008) 고령자의 주거지원 방안,
-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팀(2007) 노인생활안전 사고 실태조사 안전보고서.
- 이현진, 박재승(2010)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시설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6(1), 55-63.
- 지은영(2003)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노인주거서비스 개발방향-수요자와 전달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가정내 노인 안전사고 실태조사, [www.kca.go.kr](http://www.kca.go.kr)
- 홍형욱(2005)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및 개조 최저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22.
- 홍형욱, 지은영(2004) 지역사회보호체계를 위한 수요자와 복지서비스 전달자의 노인주거서비스 요구도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체계화, 22(2), 1-12.
- WHO(2002), 'Active Aging: A Policy Framework', World Health Organization.





## Active Aging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요구에 관한 연구

차 성 란(대전대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를 대변하는 특징적인 단어가 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단위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가정학의 실천분야로 자리 잡고 가고 있지만, 고령화에 대한 연구 및 실천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노년기 가족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런 점에서 활동적 노화를 위한 건강·사회서비스, 물리적 환경, 행동적 요소, 개인적 요소, 사회적 요소, 경제적 요소와 관련된 50대 이상 남녀노인들의 재가복지서비스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는 학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하는 현장 활동가들에게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연구가 요약적으로 제시된 데에 따라 파악할 수 없었던 한, 두가지 의문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조사도구로 사용한 설문지 문항 작성의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출처를 알 수 없었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부부, 가족, 사회영역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재가복지서비스 6개 영역의 내용을 분석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자료가 차단된다.

둘째,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사용한 가족결속력 변인에 대한 의문점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무배우자가 28.8%이며, 가족구성을 보았을 때 노인 1인가구가 15.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조사대상자의 경우 가족결속력을 어떻게 해석해서 질문지에 응답을 했을 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셋째, 연구결과에 대한 부분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가복지서비스 중 가장 요구수준이 높은 부부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선에 기여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방향이나 포함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되어 할지 파악하는데 연구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 요구를 6개 영역으로 묶어 회귀분석을 했기에 통계처리 결과가 잘 정리되는 이점은 있었지만, 연구결과에서 앞서 언급한 도움을 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노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라는 사실 외에도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자녀수의 감소, 가족 내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등은 노년기에 부부만이 남는 빈 동우리기를 보다 일찍, 보다 길게 유지하게 만들고 있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가족정책 추진과 함께 행복한 노년기

가족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 실천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정생활의 삶의 질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는 가정학 영역에서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노년기 가정생활 연구 및 실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